

기호학의 이해

기호 연구 통한 인간정신활동의 탐구

서우석

서울대 교수 · 음악평론가

기호는 무엇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 대신하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언어가 인간의 기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외에도 동물기호학, 음악기호학,
연극기호학, 건축기호학, 텍스트 이론,
매스컴 이론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호학은
기호의 체계를 연구한다는
그 목적의식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위험을 지닐 수 있다.

기호의 정의와 분류

기호학은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기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피어스에 의하면 '기호는 무엇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 대신하고 있을 때에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선 차에게 빨리 가자고, 경적을 울리면 그 소리는(무엇이) 앞 차에게(무엇에 대해) 빨리 가자는 요구를(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세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세미오시스'라고 하고, 기호는 이 세미오시스의 조건하에 발생한다고 피어스는 말한다. 예를 들어 아직 해독되지 못한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기호인데, 그 이유는 지금 그 기호를 알아보던 사람이 없지만 그것은 원래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에 가득 찬 구름은 우리에게 비를 뜻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연현상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한해서 기호일 수 있다. 즉, 구름 낀 하늘은 그 자체로서는 기호가 아니다. 한편 내가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에 그 느낌은 기호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무엇을 대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앞서 말한 기호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피어스는 기호를 지표(indice), 도상(icon-s), 상징(symbols)으로 나눈다. 지표는 자동차의 소리가 자동차를 대신하는 경우인데, 이때에 이 대신함의 관계에 있는 둘은 자연적으로 함께 붙어 있다. 산등성이 위로 올라오는 연기가 산불을 뜻하는 것 역시 지표이다. 도상은 그 모습의 닮음 때문에 대신함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의 그림이 개를 대신하고 자동차의 그림이 자동차를 대신하는 것은 이 경우이다. 상징은 그 관계를 배우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태극기의 그림이 한국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 관계는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의 말 역시 피어스의 분류에 의하면 상징에 해당하는 기호이다. 그러나 이 분류가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논의가 있다.

언어가 인간의 기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외에도 기호학은 동물기호학, 후각의 기호학, 접촉 의사소통, 맛의 기호학, 몸짓 기호학과 접근기호학, 음악기호학, 연극기호학, 건축기호학, 문학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줄거리 구조와 텍스트 이론, 매스컴 이론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들 분야의 개별적 연구와 종합적 연구가 기호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호학의 중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기호학의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언어 구조의 특성

기표/기의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관계는 자의적인 것이다. 소쉬르는 기호의 두 국면인 기표와 기의가 단어와 사물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지시이론의 오류를 수정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사람이라는 발음은 발음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것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며, 이 유형이 기표이다. 그리고 그 기표가 가리키는 기의인 사람이라는 뜻은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유형을 대신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뜻이라고 말하는 기의는 실세계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지시 이론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사물을 내용 무리(이를 내용 성분이라고도 한다)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단위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평화' '범죄' '교통신호'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단어들의 뜻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표와 기의는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유형들끼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는 기호를 '관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지-없음성(non-being)

우리가 개별적 발음(빠롤)을 듣고 그것이 유형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개별적인 것의 '다른 것 이지-없음성(non-being)'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발음은 그것이 '사람'이라는 발음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람'도 아니고 '사림'도 아니고 '사란'도 아니라는 무수한 것의 아님성의 확인으로서 그 정체성 성립된다. 기표의 자기정체성에서부터 기의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이 '이지-없음성'은 그 결정의 길목에서 선택을 좌우한다. 소위 비-존재(non-being)라고 번역되는 이 인간정신활동에 있어서 자기-부정성의 중요성은

처음 기호학을 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서적들

-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베르나르 투생 / 윤학로역 / 청하)
- 기호학이론
(움베르토 에코 / 서우석역 / 문학과지성)
- 구조주의와 기호학
(테렌트 호옥스 / 오원교역 / 신아사)
- 데리다의 해체주의(근간)
(존 레웰린 / 서우석 · 김세중역 / 문학과 지성)
- 기호학과 언어철학
(움베르토 에코 / 서우석역 / 청하)

헤겔에 의해 이미 주장된 바 있다.

계열체 / 통합체

기호학이 발견한 흥미있는 지식으로서 우리는 계열체와 통합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학교에 간다"는 말을 할 때 '나'대신 '너' '그' '친구' 등 여러 단어가 선택될 수 있다. 이 선택의 관계가 계열적 관계이고 "나...학교...간다"가 연결된 관계를 통합적 관계라고 한다.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는 언어의 전체적 구조에서 보자면 결국은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관계로 환원되지만, 그러나 언어의 구조에 있어서 이 관계의 발견은 중요하다. 바르트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법도 계열적 / 통합적 관계를 따른다고 설명한다.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먼저 수프 중에 하나를 택한다. 많은 수프들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나는 학교에 간다"에서 '나' '친구'를 택하는 것과 같고, 고기 생선 등등의 메인 디쉬를 택하는 것은 '학교'를 택하는 것과 같고, 끝으로 후식을 어떤 것으로 먹느냐는 앞장문에서 "간다"라는 단어를 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문장의 구조나 음식 먹는 구조나 모두 같은 법칙 즉 계열체와 통합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중분절

한편 레비 스트로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는 이중분절은 기호를 만드는 재료의 연속체가 두번의 분절을 겪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한번의 분절 밖에 없는 기호도 있고 이중분절보다 더 많은 분절을 지니고 있는 기호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이중분절은 기호 중에 가장 뛰어난 기호인 언어의 특징을



우리말로 번역된 기호학 관계 서적들. 기호학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서적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루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의 이중분절은 먼저 음소적 차원에서 발음들이 구별되는 분절과 구문적 차원에서 문법적 관계가 구별되는 두개의 분절을 가리킨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에 먼저 소리들을 분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하고, 다음 문법적 관계의 분절을 이룰 수 있어야만 그 말의 뜻을 알아듣게 된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음악은 그것이 조성을 약일 경우에는 이중분절의 구조를 갖지만, 무조성의 음악(예를 들어 쇤베르크의 음악)은 하나의 분절 밖에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중분절은 카드나 화투놀이에서도 나타난다. 화투는 각 패가 그 모양의 구별로써 일차의 분절을 거치고, 그 패가 모여서 약이라는 다른 값을 이룸으로써 이차의 분절을 거친다.

기표의 연쇄

단어의 뜻이 다시 다른 단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보면 모든 뜻, 즉 기의는 다시 다른 뜻에 대한 기표가 된다. 결국 단어의 뜻은 사물의 가리킴, 즉 명시(ostentation)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르쳐줌, 즉 제도(institution)로 돌아가야 한다. 명시이거나 제도이거나 간에 단어의 기의는 다른 기의의 기표가 되고 또 그 기의는 또 다른 기의의 기표가 되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는 순환구조에 걸려 들어 결국 언어라는 기호체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완결된 하나의 사슬이 되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계열체와 통합체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라는 사실에서 이미 예견되는 것이다. 만일 언어가 자체만족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

문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가 후기 구조주의자인 데리다와 라캉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후기 구조주의의 이론

차연

데리다의 설명을 간략히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언어의 구조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 '차이'가 시간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차연'(differance)이라는 말을 이해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의 설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차연은 우선 개념이 아니다. 그것이 개념이 아닌 이유는, 그것을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개념 역시 언어의 순환구조 안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차연은 첫째 차이지어진 것들의 비자기동일성, 즉 이지-않음성이고, 둘째 차이짓는 것들의 논쟁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세째 연기(deferment), 지연(delay), 유보(reservation), 재현(representation)이다. 차연은 차이를 만들어나가는 힘이다. 차이를 만들어나가는 힘이야말로 인간에게 기호를 만들어주는 바탕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단어가 뜻을 갖게 되는 것은 말을 되풀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뜻을 말에 끊임없이 '씨 뿌려 넣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 씨뿌림을 의미산포(dissemination)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맨(hymen : 혼인 또는 처녀막의 뜻)을 넘나드는 인간의 성적관계로 은유하고 있다.

팔루스

한편 라캉은 정신분석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말이 생기기 위

해서는 한 쌍의 기표, 즉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만 그 하나가 다른 하나에 기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10개월 가량된 손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얻은 결론에 의하면 최초의 말은 두 마디로서 fort와 da이다. 프로이트의 손자는 어머니가 일하러 간 동안에 실타레 모양의 장난감을 던진 다음 그것이 멀리 갔다는 뜻으로 fort라는 말을 하고, 그곳으로 기어가서 실타레를 잡은 다음 여기 있다는 뜻으로 da를 발음하였다. 프로이트는 이 실타레가 그 아이에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현전과 부재를 어머니의 현전과 부재로 해석하였다. 즉, 최초의 기호 탄생으로 보았다.

그러나 라캉은 fort만을 발음했을 때에는 아직 기호세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fort를 발음했을 때에 이 세상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어야 할 곳이 없다. 그러나 da가 발음되면 그것은 앞서의 fort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기호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기호의 뜻은 다른 기호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캉에게는 fort는 단일항일 따름이고 그것은 이항적 기호의 바탕이 될 따름이다. 반면 da는 이제 기호이다. 그러면 fort라는 단일항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라캉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즉 모든 기호들의 모체인 언어가 최종적으로 가 닿아야 하는 곳이다. 그는 이것을 정신분석학의 용어로서의 '결여'라는 말로 나타내고, 그 결여의 주변에 우리의 무의식이 형성되며 이 결여를 팔루스(phallus)라는 말로 표현한다. 결여 즉 없음이 모여 이론 기둥인 팔루스는 해부학적 의미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으로서의 남근이다. fort에서 da로 넘어오으로써 인간은 '충동'(pulsion, Trieb)의 세계를 떠나 언어가 관여되어 있는 '소망'(desir, Wunsch)의 세계로 넘어온다. 이 넘어오는 과정을 라캉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옮겨옴으로 설명한다. 상상계의 특징은 나와 바깥세계가 아직 구별되지 않은 세계이다. 데리다가 기호를 만드는 힘, 즉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천적인 힘을 개념이 아닌 차연에 둔 반면에, 라캉은 그것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기에 대한 영역, 즉 아버지의 권위에 두고 있다.

기호학의 벽

기호학은 기호의 체계를 연구한다는 그 목적의식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위험을 지닐 수 있다. 1984년에 간행된 「데리다의 해체주의」(Derrida, On the threshold of sense)에서 레웰린은 기호학의 체계를 헤겔의 변증법, 후설의 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소쉬르 등의 구조주의자들의 이론, 설, 오스틴 등의 발화이론, 방브니스트, 곤다 등의 이집트 고대어 연구결과, 데리다의 이론 등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의 요점은 은유로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언어 능력의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에게 입력시켜 언어를 말하게 해본다고 가정하자. 그 로봇은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에 말할 수 있을까? 또 그 로봇의 말도 인간의 말처럼 변화하며 새로운 말을 만들어 언어의 역사를 창조해나갈 수 있을까? 로봇의 작동은 인간이 스위치를 켜는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스위치를 켜다. 스스로 스위치를 켜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 능력은 헤겔의 이론에서는 이빨리프가 제기한 주인 지배(mastery) / 자주성(sovereignty)의 문제이고, 후설에게는 초월적 자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데리다에게는 무엇을 보고 있는 자기를 감싼 곳에서 보아야 하는 불가능성이고, 라캉에게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빠져나올 때 생기는 결여의 덩어리, 즉 없음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자주성, 초월적 자아, 차연, 결여 등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말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